

매튜 S. 하몬 박사, 빌립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제6강 : 복음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공동생활에 뿌리내린 기쁨 - 빌립보서 2:1-4,

BiblicaleLearning.org, 테드 힐데브란트 저

저는 매튜 S. 하몬 박사입니다. 빌립보서 강해 시리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함께하는 삶에 뿌리내린 기쁨"이라는 주제로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을 나눕니다.

빌립보서 연구 여섯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맺는 나눔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빌립보서 어디까지 살펴보았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부분은 빌립보서 본문의 서두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의 일부인 하늘에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결정한다는 것, 복음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 그리고 반대에 직면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 고난과 믿음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럼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가 있고 사랑으로 위로가 있고 성령으로 교제할 수 있고 애정과 동정이 있다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온전히 일치하여 나의 기쁨을 온전하게 하십시오."

이기심이나 자만심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십시오. 각자 자기 이익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자, 그럼 이 구절의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리스어 문장 구조와 영어 문장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영어 번역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지만, 원래 그리스어에서는 하나의 긴 문장입니다. 따라서 영어 번역에서는 이를 여러 개의 짧은 문장으로 나누는 것이 옳지만, 사실 이 네 절은 모두 하나의 긴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한 형태의 문장입니다.

이것은 조건문입니다. 그리스어로는 '만약 ~라면 ~이다'라는 식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당 구절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조건문을 'if -then' 또는 하나의 큰 범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 그리스어에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조건문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급 조건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든 안 하든 중요하지는 않지만 , 중요한 것은 작가가 일급 조건문을 사용할 때, 논증의 편의를 위해 'if' 부분은 참으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일급 조건문의 문법을 사용하여 이렇게 표현했을 때, 비록 '~라면'으로 번역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핵심은 '~라면'이라는 의미이고,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라면'이라는 현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가 있다면"이라고 말할 때, 그는 의심하거나 그것이 실제로 사실 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실상,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따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문의 핵심은 논의를 위해 이 조건이 참이라고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1절은 이 조건문에서 '만약'에 해당하며, 여기서 빌립보서는 복음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네 가지 유익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에 해당하는 내용은 2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그는 본문의 핵심 명령인 온전한 기쁨을 주며, 그 후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여러 절들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4절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하지만 각 구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1절부터 4절까지와 5절부터 11절까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의상 각 구절을 따로 다루는 이유는 각 구절에 더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는 5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소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묘사된 것들은 바울이 5절에서 언급하고 6 절부터 11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그리스도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동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각 구절에 더 집중하기 위해 이 두 구절을 따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 설교하거나 가르치신다면, 이 두 본문을 하나의 일관된 단위로 함께 설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구절들에 담긴 풍성한 내용 때문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루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절에서 발견하는 것들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함께 나누는 삶에서 비롯된 기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은 복음의 네 가지 유익, 즉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 인해 우리가 경험하는 네 가지 현실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격려"라는 표현입니다. 격려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언어적인 격려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일반적인 격려만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격려도 좋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격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그 격려의 근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모든 진리를 묵상할 때 격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격려는 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얻는 유익을 일깨워주는 외적인 측면도 포함합니다.

바울이 1절에서 언급하는 첫 번째 유익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서 오는 위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위로와 안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궁극적인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통해 실제로 경험하는 유익이라는 점입니다.

셋째,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교제, 즉 참여라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같은 개념이 다시 등장합니다. 1장 5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의 유익에 바울과 함께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1장 5절을 다시 살펴보면, 그는 “여러분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동역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그 동역, 그 연합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참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공통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민족적 배경, 사회경제적 배경, 연령,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며, 그분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복음의 유익을 함께 나누게 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애정과 공감에 대해 언급합니다.

저는 이것들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깊은 사랑의 충동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충동은 타인에 대한 무형의 관심으로 표현됩니다. 1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빌립보 사람들을 간절히 사모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러한 애정과 서로를 향한 관심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행동들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놓쳤을 수도 있는 것은,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실제로 삼위일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격려, 사랑으로부터의 위로, 그리고 성령과의 교제가 언급됩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에 삼위일체론적 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제시하는 복음의 네 가지 유익이며, 그는 이것들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참된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 즉 복음의 네 가지 유익을 바탕으로 바울은 명령을 받습니다. 이것이 참된 진리이므로,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2절에 나오는데, 그는 “내 기쁨을 온전하게 하소서”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표현인데, 그가 이미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는 기쁨이 없으니 제발 내게 기쁨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내 기쁨을 완성해 주세요. 가득 채워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쁨이지만, 여러분은 그 기쁨을 더욱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몇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죽음과 부활을 앞둔 날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이 자신의 기쁨, 즉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누리셨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보면, 이 기쁨과 요한복음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기쁨을 완성한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기쁨을 추구하라는 명령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엄격하고 절제된, 거의 암울하기까지 한 기독교 신앙을 접해온 배경에서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인의 삶은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예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그 말에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기를 바라십니다.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쁨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굳이 스스로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것을 잘못된 곳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기쁨을 온전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며, 이를 같은 마음을 갖는 것과 연결 짓습니다. 2장 2절에서 그가 “같은 마음을 가짐으로써 내 기쁨을 온전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저는 바울이 교회 구성원 모두가 삶의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정확히 똑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삶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 가치관, 우선순위, 그리고 공통된 믿음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또는 사고방식 이라는 개념이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 주제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지적인 질문에 대한 특정한 답을 제시하는 지적인 세계관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개념은 가치관, 신념, 그리고 실천을 포함하는 삶의 공유된 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경험을 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일련의 방법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완전한 기쁨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만도 적어도 다섯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들을 빠르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같은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미 사랑에서 위로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기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근본적인 생각에서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둘째, 완전한 일치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영어로 바울이 그리스어 원문에서 말하는 바의 본질을 온전히 담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공통된 삶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의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복돋아 주고 더욱 깊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셋째는 한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잠깐, 바로 네 구절 전에 거의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표현은 "한 가지 생각만 하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과 그 의미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 점을 꼼꼼히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쉽게 정신이 팔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생각, 즉 복음과 그 의미에 대한 한결같은 집중이 우리를 믿는 자들로서 하나로 묶어주고 우리의 기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심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우리 눈에는 우리가 바로 그 '자기 자신'이 되어 보입니다. 바울은 기쁨을 극대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이기적인 야망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기적인 야망은 모든 것을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이득이 되는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최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용하거나 조작하여 내 명예, 평판,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기쁨을 얻는 비결은 이기적인 야망이나 자만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돌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당연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돌보고, 이 상황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찾는 일종의

자기 부인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의 기쁨을 완성하도록 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기적인 야망이 아닌 겸손이라는 개념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4절, 아니 3절을 보면, 그는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킹 제임스 성경은 이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여기서 '이기적인 자만' 또는 '이기적인 야심'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를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허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그리스어 두 단어의 조합입니다. '텅 빈'이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죠. 그래서 영광스럽지만 동시에 텅 비어 있다는 놀라운 조합이 된 겁니다.

그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허영심이나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참된 영광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자신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은 마음에서 시작되어 특정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거기서부터 시작 해야 하고 ,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겠다는 의식적인 의지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겸손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 유대교, 기독교 전통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겸손을 당연히 미덕으로 여기고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겸손이 미덕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은 약점으로 인식되었고, 약점을 보이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오히려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추구했고 , 어떤 약함의 모습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초기 기독교인들의 독특한 점 중 하나는 겸손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단지 좋은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매우 고귀한 가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구약 성경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구절인 2장 5절부터 11절까지에서 보듯이,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문화의 일부에서는 겸손이라는 미덕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높이 고 싶어하고, 남들이 자신을 높이 평가해주길 바라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

다양한 방식 으로 나타납니다 . 때로는 아주 미묘하게 드러나기도 하죠. 우리는 교만의 현실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는 우리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자기희생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희생이라는 말 자체만으로도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니까요.

혹은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히 당신의 것일 수도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삶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을 특징짓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 안에 구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절 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핵심 아이디어는 무엇일까요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최대한 누리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요소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 복음의 유익을 경험함으로써 기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경험하고 심화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그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유익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이 세상 시작부터 네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격려, 사랑에서 오는 위로, 성령 안에서의 교제, 애정, 그리고 공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덕분에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며, 마땅히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타인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일치를 추구함으로써 기쁨을 극대화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가는 길이 단순히 물질적인 소유물이나 경험을 축적하는 것, 즉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최고의 기쁨으로 가는 길은 사실 타인 중심적 이라는 것입니다 . 기쁨으로 가는 길은 자기희생적인 사랑과 타인에 대한 봉사에 있다는 것이죠. 이는 당시에든, 지금도 매우 반문화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동안에는 분명히 그것은 반문화적인 것으로 남을 것입니다 . 이것이 큰 그림입니다. 이제 몇 가지 적용 사례를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거나 이해해 봅시다.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 세상의 즐거움을 앗아가는 분으로, 우리가 행복하거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워 야 한다는 생각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또다시 잘못된 곳에서 그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기쁨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기희생적인 사랑으로 타인을 섬기는 삶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쁨을 추구해야 하고, 최대한 많이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 길이 실제로 타인을 위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할 진정한 변화이자 전환입니다 .

셋째, 갈망 또는 느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느끼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기쁨은 표면적인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더 깊은 무언가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바울은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상황이나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좌우될 수 없습니다. 기쁨은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하고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주님께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사랑을 심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 이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입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물론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순종으로 일치하겠죠.

하지만 제 경험을 통해, 제 감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도 순종할지 말지 선택 해야 하는 순간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렇게 순종하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하는 도중이나 후에 제 감정을 바로잡아 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기 싫으면 순종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사로 잡혀서 는 안 됩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 그리고 교회 에 오래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랑하기가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야. 이번엔 봐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 절대 아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과정에서 그런 소망과 감정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하세요. 이번 주에 다른 사람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기희생적 사랑의 행동 하나를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거창한 행동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이번 주에 누군가 를 축복하기 위해 시간, 에너지, 어쩌면 돈 까지 투자하는 작은 일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보고, 그 사람 에게 도움을 주거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2장 5-11절에 나오는 소위 '그리스도의 찬가'를 이해하는 데 밑거름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찬가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매튜 S. 하몬 박사입니다. 빌립보서 강해 시리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